

옛 도요마의 마을 풍경: 미야기 메이지 마을

미야기현 북부 도메시의 역사적인 마을 풍경은 네온사인과 자동차 소음이 없던 옛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. 도요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메이지 시대(1868~1912) 건물이 다수 남아 있어 ‘미야기 메이지 마을’이라고 자주 불립니다. 주요 명소로는 교육자료관, 경찰자료관, 구 미즈사와현 청사, 전통예능전승관 모리부타이(숲의 무대), 다카쿠라 가쓰코 미술관, 구 스즈키 가문 무가 저택 내의 순란테이 카페 등이 있습니다.

이 조용한 거리는 영화 제작자, TV 드라마의 감독, 아마추어 사진가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. 2021년에는 NHK 아침 연속극 「어서와 모네」의 촬영지로 120 화에 걸쳐 방송되기도 했습니다. 이 드라마는 기상예보관이라는 꿈을 위해 도메로 돌아온 젊은 여성의 이야기로, 일본 시청자에게 메이지 시대의 정겨운 거리 풍경을 소개했습니다.

구 미즈사와현 청사에서는 앞서 소개한 관광 명소의 할인 티켓을 판매합니다. 도메시의 역사지구는 센다이에서 쉽게 갈 수 있으며 1 시간에 1 번씩 미야기 메이지 마을과 센다이역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.(소요 시간: 1 시간 35 분)